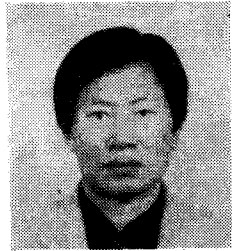


# 여름철의 사양관리 및 예방



본회수의사 성 유 석

## 1. 사슴의 사육관리

여름철에 접어들면 어미사슴은 새끼를 분만하게 되는데 번식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농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게 된다.

늦은 가을에 발정을 해서 대개 6, 7월 경 새끼를 분만하게 되는데 임신기간중 영양을 잘못하여 난산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어미가 새끼를 분만하게 되면은 어미는 새끼를 핥아주기 시작하여 털에 묻은 물기를 제거해 준다. 이렇게 하여 보행을 하려고 시도하며 만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보행을하여 뛰기도 하게 된다.

또한 어미는 모성애를 발휘하여 주위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새끼를 돌보며 항문을 핥아주며 배변이 잘 되도록 하여 새끼가 젖을 잘 먹도록 하며 젖을 먹고 난후에도 계속 돌봐주며 새끼가 안전하도록 나무밑이나 바위등 숨어서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며 어미는 먼곳에서 계속 새끼를 감시 경계하는 것을 볼수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어미나 새끼에게 불안한 느낌을 주어서는 않된다. 이때 암, 수 함께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이 시기에

마는 따로 격리 사육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어미 사슴이 새끼의 항문을 자주 핥아주는 것은 새끼의 배변을 돕는 본능적인 생리적 현상이나 간혹 너무나 빈번히 과격하게 항문을 핥아주어 항문주위가 혈어 항문의 염증으로 항문이 폐쇄되어 배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심히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배변이 불규칙하거나 자유스럽지 못할경우 관장을 시켜야 한다.

젖을 먹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2~3개월 부터는 어미를 따라 풀을 먹게되며 4개월정도면 새끼도 자기 스스로 생활해 나아갈수 있게된다. 이때에 성장을 돕기위해 무기물이나 비타민등 사료 첨가제를 석여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 가) 새끼의 인공 사육

주위 환경의 불안감으로 혹은 난산으로 어미의 건강에 좋지못한 영양을 주었을경우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인공사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않된다. 대개 3일 혹은 5일 정도로 그 이상의 초유를 먹인 새끼는 인공 사육이 가능하나 전혀 초유를 먹지 못한 새끼는 인공초유를

실시하더라도 모체 면역이 없는 관계로 폐사하기 쉽다.

초유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지방의 함량이 많으며 새끼의 위장내에서 흡수가 빨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미의 새끼에 대한 영양이다. 인공 초유를 시작할 때에는 우선 어미와 새끼를 격리한 다음 끓인물에 분유와 소화 효소 효모제를 첨가 복용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인공 초유전 체온과 함께 같은 온도로 탈지면이나 거제에 물을 적신다음 향문을 닦아 식욕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나) 어미 사슴의 사육관리

만 1년이 지나면 모든 체구가 어미와 같은 면모를 갖추며 숫슴의 경우에는 뿔이 약간 돋아나오게 된다. 암슴은 1년이지나면 임신이 가능하게되면 또한 새끼를 분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나야 성숙으로서 최적에 들며 주위환경이나 기후 질병에 이겨 나갈수 있게 된다.

성숙된 암슴의 경우 늦은 가을에 발정이 오며 교배를 하여 다음해 6, 7월 이면 분만을 하게 된다.

임신기간중 영양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며 추운겨울 동안에는 추위를 이겨낼수 있도록 열량이 높은 고단백사료를 많이 급여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봄이되면 태아의 성장시기이므로 너무많은 단백질 사료를 급여하므로 과태로 인한 난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주 운동을 시켜 미연에 과태를 예방하여 순산을시켜 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 요즈음 운동부족 비만등에 의한 난산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암슴의 발정 지속 시간은 2~3 일간이며 재발정이 오는 발정주기는 20~21 일 사이이다. 교배가 시작해서 끝나면 임신이 되는데 임신초기의 감별은 일반가축과 달라 힘들며 4~5개월이되면 하복부가 팽대되어 6~7개월이 되면 완전히 하복부가 뒤쪽으로 처지기 시작하며 젖이 부풀어 오른다. 7~8개월이 되어 분만일이 가까와오면 어미사슴은 불안해하고 사료를 전혀먹지 않으며 새끼를 낳을 만찬 장소를 정하게 된다. 이때에는 절대로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되며 미리 짚같은 것을 깔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상분만 후 4~5시간이 지나면 후산이 되는데 이때 주위환경이 불안 할 경우 후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하여 주기를 바란다.

#### 다) 수사슴의 사육관리

수사슴은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점이 사슴의 특징이며 이를 녹용이라고 한다. 이는 체내의 성호르몬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3~5월이 되어 딱딱한 굳어버린 뿔이 떨어지고 이때가되면 온순한 사슴으로 되돌아간다. 이때부터 머리에는 혈액이 통하는 말랑말랑한 뿔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60~90일 사이에 뿔을 잘라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녹용이라고 하며 자를때 많은 혈액이 나오므로 녹혈도 함께 채취하게 된다.

또한 이때 암놈은 임신을 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수놈이 접근하면 암놈이 앞발로 치거나 물어뜯어 접근을 막으므로 더욱 수놈은 처량하게 보인다.

그러나 8~9개월이 되면 서서히 굳기 시작하여 10월정도면 아주 딱딱한 뿔로 변하여 뿔을 땅이나 나무 기둥에 비벼 더욱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 암놈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리게 된다.

쟁탈전에 일러 동족간 우의 다툼으로 종종 사고가 나는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암수를 분리 사육시켰다가 발정기가 돌아오면 왕위를 차지한 사슴만을 암놈간에 넣어주어 번식을 하도록 하며 만일 암놈이 발정이 되지않아 수놈에게 쫓겨 다니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일방적인 수사슴의 교미욕이므로 암놈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잠시 격리시켰다가 합사시키는 것이 좋다.

## 2. 여름철 사육관리

초여름이 시작되며는 수놈의 경우 뿔을 자르기 시작하며 한 여름철 낮에 뿔을 자르는 것은 위험하며 서늘한 새벽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다. 때를 같이하여 암사슴에게는 분만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병행하여 한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과태나 혹은 난산으로 인한 이상 분만일 경우 수의사의 조속한 진단으로 미리예방을 위한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름철에 특히 우기에 의한 장마철인 관계로 오물의 배출과 사육장내의 습한것으로 기생충과 세균감염이

잘 되기 쉽다.

또한 사료의 부패 가능성도 높아 장염을 초래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된다. 이 경우 사료에 예방을 위한 약품을 혼합투약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료통은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번식될 염려가 있으므로 물로 깨끗이 닦고 햇볕에 말려 사용함이 이상적이라 보겠다.

16p에서 계속

---

분계서는 종전과 같이 녹용을 건조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녹용생산에만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건조는 본인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읍니다. 막대한 자본과 시설을 갖춰 내년부터 건조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앞으로 수년간은 많은 적자가 예상되나 한국녹용의 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슴농가의 소득은 물론 한국양록업의 육성과 발전을 꾀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자급자족된 녹용으로 사슴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만 의존하던 녹용사업의 끝날이 옴과 동시에 막대한 외화의 낭비를 막아 부강한 조국건설에 이바지 합시다.